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부 모두발언(10.23일)

※ 산업부 장관(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차관 발언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업체는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반도체 핵심소재의 공급망이 단절된 상황에서,  
자립기술을 확보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은

일본 수출규제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조치, 중국의 희토류 전면 통제 등  
첨단산업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확산으로

산업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혁기에  
모방과 추격의 성장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전과 혁신, 속도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근본적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없이는 첨단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며,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에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2026년부터 30년까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을 강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재도약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R&D 전략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도형 도전기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하여  
R&D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특허 및 세제 등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전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최고 역량을 확보한 슈퍼 을 기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에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의 R&D를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등  
핵심 프로젝트별로 전담 무역관을 배치하고  
마케팅, 금융, 인증 등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분야가 선도하여 내수 시장도 키우겠습니다.

AI, 양자, 방산, 재생에너지, 항공 등  
5대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함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태계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생산, 구매 3대 협력이 산업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술 협력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극복의 성공모델인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협력유형도 지역 주도형, 데이터 공유형 등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생산 협력 확대를 위해

새로 지정할 10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기존 10개 특화단지를 지역 전략산업별로 특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화단지를 앵커기업과 참여기업,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 생산 협력이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도록 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수요기업 구매자금 저리 융자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재정, 정책 기금 및 펀드 등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원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과제별 이행현황을 소부장 위원회를 통해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